

회원사동향

MEMBERSHIP TREND

대한전선(주), 싱가포르 국영통신에 광케이블 공급

대한전선(주)(대표 :임종욱)가 세계적 전선업체들을 제치고 싱가포르 국영통신 광케이블 공급사로 낙찰, 국내 광케이블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

대한전선은 싱가포르 국영통신회사인 싱텔(SingTel)사에 300만달러 규모의 광케이블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계약으로 12만f.m에 해당하는 광케이블을 1년간 공급하게 되며 6개월간의 추가물량도 예정되어 있다.

대한전선은 경쟁사보다 높은 가격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광통신케이블의 핵심인 무수광섬유(Low Water Peak Fiber)의 우수한 제품 특성을 인정받아 수주에 성공했다.

이번에 대한전선이 공급하게 될 광케이블은 광통신용 무

수광섬유를 사용해 기존 광섬유 보다 사용파장 영역을 2배 이상 증가시켰다. 또한 가입자망(FTTH) 구축 시스템에 적용할 시 시스템 비용을 30%이상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5년 이상 장기간 손실특성을 유지하는 우수한 기술적 특성을 갖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무수광섬유를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대한전선을 비롯해 미국의 코닝, 프랑스 알카텔 등 전세계 6~7개사 뿐이다.

대한전선은 자회사인 옵토매직을 통해 광섬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옵토매직은 무수광섬유를 국내 최초로 개발, 상용화해 산업자원부로부터 한국신기술인증(NT마크)을 획득했다.